

# 제21회 대한민국아동총회 결의문

- 더워지는 지구 멀어지는 아동의 일상,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



■ 일시 : 2024년 8월 6일(화) ~ 8일(목)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국제청소년센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제21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 결의문

1. 교육부에서 교과서 물려주기 기간을 7월과 12월로 정하고, 참여한 아동에게 일정 봉사시간을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 주세요.
2.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상황 시, 만 5~14세 아동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재난문자를 보내고, 장애 아동에게도 실용적인 경보기를 공급해 주세요.
3. 아동이 기후 변화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역교육청에서 '온라인 아동 환경 토론 앱'을 운영하고, 분기별로 우수 토론자를 선정하여 시상해 주세요.
4. 아동이 수산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바다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 해초지·염습지(갯벌) 복원 사업을 확대해 주세요.
5. 교육부는 2주에 한 번 이상 로컬푸드를 활용한 저탄소환경급식을 의무화해 주세요.
6.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재활용 종이와 친환경 잉크로 제작한 교과서를 도입해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자원을 보호해 주세요.
7. 교육부는 초등학교로 외부강사를 지원하여 연 2회 이상 기후변화로 인한 해충 예방 및 퇴치 교육을 시행해 주세요.
8.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내구성이 높은 경사로의 전국적인 설치를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9. 교육부는 교육청 단위로 수업 자료가 삽입된 지역별 온라인 수업 앱을 만들어, 재난으로 인해 등교가 어려운 상황에도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해 주세요.
10. 환경부는 아동의 의견이 환경오염 시설에 관한 지역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11. 환경부와 교육부는 매년 아동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후 위기 관련 행사를 마련해 주세요.
12. 교육부는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지역 특색을 반영한 '환경 과목'을 만들어 주세요.
13. 환경부와 교육부는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기후환경 교육을 매년 실시해 주세요.
14.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처한 동아시아 아동이 도움을 요청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EAS(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제안해 주세요.

2024년 8월 8일

제21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참가자 일동

## 제21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 결의문 및 제안이유

### 1

교육부에서 교과서 물려주기 기간을 7월과 12월로 정하고, 참여한 아동에게 일정 봉사시간을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 주세요.

#### ■ 현 상황과 문제점

- 깨끗한 교과서의 불필요한 처분 등 비효율적인 종이의 낭비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 교과서 내부에 작성하게 되어있는 '교과서 물려주기 기록표'가 있지만 실천이 되고 있지 않다.
- 기존의 교과서 물려주기 운동은 실천 효과가 없다.

#### ■ 개선방안

- 기간정하기 : 교육부에서 깨끗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교과서를 학교에 물려주는 기간을 7월, 12월로 정하여 무분별한 교과서 배급을 줄인다.
- 기간 홍보 : 교과서 물려주는 기간을 학교에 권고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리한다.
- 보상 : 학교에 물려준 교과서가 다시 쓸 수 있는지 검증되면 일정 봉사시간을 받는다.

#### ■ 기대효과

- 교과서 제작 자원과 비용이 절약된다.
- 나무를 덜 베어서 지구 온도 상승을 늦춰 자연재해가 예방된다.
- 봉사시간을 주어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봉사 정신을 알리고, 성취감을 높여 아동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
- 학교 행사로 교과서를 물려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천하기 쉽다.

## 2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상황 시, 만 5~14세 아동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재난문자를 보내고, 장애 아동에게도 실용적인 경보기를 공급해 주세요.

### ■ 현 상황과 문제점

- 2016~2021까지 6년동안 44개국에서 자국내 강제이주한 아동이 4310만 명이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 조사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아동위기인 것을 대부분 잘 모른다고 한다. 이를 보면, 기후 재난은 아동들에게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 읽고, 쓰기를 힘들어하는 초등학생들이 20%가 넘는다. 이는 10대의 문해력 저하를 보여주며 안전문자를 이해하는 것이 아동들에게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또한, 장애 및 취약계층 아동들은 기후 재난에 더 큰 피해를 겪고 있다.

### 〈참고〉

기후재난으로 강제이주한 아동, 지난 6년간 4310만 명 달해

<https://omn.kr/25wwz>

세이브더칠드런 "기후위기가 아동 위기인 거 대부분 잘 모른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018>

“코로나로 아이들 문해력 위험신호…읽기·쓰기 힘든 초등생 20% 넘어”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2000>

기초학력과 문해력 및 학교교육의 과제(박지희 서울 상원초등학교 교사) [출처:교육신문]

<https://naver.me/50eytVT2>

### ■ 개선방안

- 만 5~14세의 아동에게 알기 쉬운 어휘와 그림을 활용하여 아동용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
-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는 장애 또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LED 가정용 경보기를 제공한다.

### ■ 기대효과

- 아동들이 재난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고 알 수 있다.
- 도움이 더욱 필요한 아동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 3

아동이 기후 변화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역교육청에서 ‘온라인 아동 환경 토론 앱’을 운영하고, 분기별로 우수 토론자를 선정하여 시상해 주세요.

#### ■ 현 상황과 문제점

-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위기감을 느끼는 대상은 아동이지만, 환경 관련 교육에서는 아직도 수동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모든 아동은 자신이 느끼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에 비해 참여할 기회가 적다고 느껴진다.
- 비수도권 아동은 아동활동에 접근성이 수도권 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문제점이 있다.

#### ■ 개선방안

- 앱을 이용하여 모든 지역 아동들이 모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부에서 운영하는 참여의 장을 이용함으로써 아동의 의견이 실제 아동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앱 운영방안)

- 아동이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앱을 만들어 실시간 화상 토론방과 댓글 토론방을 운영한다.
- 토론 주제도 아동이 제기할 수 있도록 ‘토론주제 제기방’과 그 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을 만들어 운영한다.

#### ■ 기대효과

- 아동이 기후변화에 대한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수동적인 참여 존재에서 벗어나 서로 의논하고, 아동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과 창의성을 유도한다.
- 아동형 앱을 개설하여 안전하고 바람직한 온라인 사용관을 기를 수 있다.

# 4

## 아동이 수산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바다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 해초지·염습지(갯벌) 복원사업을 확대해 주세요.

### ■ 현 상황과 문제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 필요성을 중심으로〉

- 포항공대의 연구\* 에 따르면,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들며 초래되는 산성화는 플랑크톤의 성장을 방해하여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원호섭. (2018년04월20일). [Science &] 이산화탄소에 탈난 바다...급격한 산성화로 해양 생태계 위협. 매일경제

- 호주 서던크로스대 및 미국 워싱턴대 공동 연구진은 “2050년까지 해양 산성화가 계속 된다면 전 세계 대부분의 산호초(해양 생태계)가 존속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해양 생태계의 보전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해양 생태계 파괴는 아동의 식단에 사용되는 풍부한 수산물의 소멸을 초래하고\*\*, 인류 전체의 엄청난 식량난이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상황이다. (유엔환경계획)

\*\* 노르웨이 과학기술대 및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연구(‘18.3.19. 네이처 생태와 진화 게재): 산성화에 따른 수산물 존속의 위협(청어 제외)

〈“해초지·염습지 복원 필요성” 을 중심으로〉

- (기존사업) 환경부 산하의 국립공원공단은 연간 탄소 316t을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의 해초지·염습지 복원사업을 추진했지만, 부실한 사업과정과 사후관리(이은주의원질의)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사업 내용의 효과는 탄소중립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거나, 부실한 추진·관리로 취지가 퇴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실 추진·관리를 보완하여 해양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다.

- 해양 생태계 복원은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어 해양 생태계가 악화될 경우 아동의 식량문제 뿐만 아니라, 바다가 제공하는 환경적인 자정작용 및 바다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상실하게 될 수 있어 복원이 필요하다.

### ■ 개선방안

#### 개선방안 1)

- 현재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인 아동을 위한 해양수산부 주도의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및 후속관리를 한다.
- 해양수산부가 서해·남해 연안 복원 적합지에 해초지·염습지 복원 사업을 추진하여 해양 생물 개체수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증가시킨다.

\* 세부설명

: 서해와 남해연안은 발전시설이 밀집해 산성도가 높은 편이고, 기존 갯벌부지가 많아 상대적으로 보전사업을 추진하기에 용이함

- : 수질개선 사업을 강화하여 해초지를 보호하고, 고정법(해초이식방법중하나)을 이용한 해초류 이식을 진행하여 해초지를 복원함
- : 계산결과 3.3㎡의 염습지에서는 연간25kg의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직접 계산한 결과로, 오차 있을 수 있음)
- : 복원사업 추진 전에 복원적합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복원가치가 풍부한 지역을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여 효과를 극대화함

## 개선방안 2)

- 염습지(갯벌) 인근 청정환경 조성을 통한 갯벌의 교육환경화(실습)
- 해양수산부가 염습지 인근에 청정환경을 조성하고 교육부가 아동 대상 실습/체험형 교육환경으로 염습지를 활용한다.

### \* 세부설명

- : 해양수산부 주도로 염습지 인근에 나무와 화단을 만들고 쓰레기통을 설치해 누구나 방문하기 좋은 청정환경으로 조성함
- : 염습지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 교육부 주도로 연안인근에 아동을 대상으로한 줍깅 및 갯벌 관련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함
- : 해수부-지자체가 염습지 보전관련 주제 공모전을 운영해 현재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인 아동이 갯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계기를 제공함
- : 갯벌 인근지역에 설치된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아동참여기구를 중심으로 갯벌과 아동에 관한 포럼을 운영해 목소리를 청취함

### ■ 기대효과

- 해양 내 이산화탄소 감소로 바다 산성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 건강한 자연 체험 공간을 아동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생태계 복원 및 해양 생물을 보존할 수 있다.
  - 아동들의 다양한 영양분 섭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해양 환경 체험 기회를 늘릴 수 있다.
- 환경의 보존을 위한 교육현장 답사의 기회를 제공한다.

# 5

## 교육부는 2주에 한 번 이상 로컬푸드를 활용한 저탄소환경급식을 의무화해 주세요.

### ■ 현 상황과 문제점

- 우리의 교육환경이 기후변화 가속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었고, 아동의 학교급식이 탄소배출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 현재 저탄소환경급식을 이행하는 학교의 수가 현저히 적고, 재료를 운송하는데도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 ■ 개선방안

- 2주에 한 번 이상 로컬푸드를 활용한 저탄소환경급식(즉, 채식위주의 식단)을 학교에서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을 기존 권고에서 의무화합니다.
- 만약 지역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이 어렵다면 수송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최단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농수산물을 수송합니다.
- 로컬푸드는 급식의 30% 이상 채울 것을 제안합니다.

### ■ 기대효과

- 대부분이 채식으로 이루어진 저탄소환경급식을 의무화하면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축의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저탄소환경급식은 건강한 채소로 이루어져 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만 및 과체중 아동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성인병을 예방하고 아토피 등 피부질환 위험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로컬푸드를 활용하여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로컬푸드 : 장거리 운송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의미하며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것을 말합니다. 장거리 운송이 필요하지 않아 운송과정 중 발생하는 탄소배출과 연료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6

###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재활용 종이와 친환경 잉크로 제작한 교과서를 도입해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자원을 보호해 주세요.

#### ■ 현 상황과 문제점

- 학기 또는 학년마다 교과서가 달려져서 한 번 쓰고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교과서가 많다.
- 학생들이 버려지는 교과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무감각하다.
- 교과서에 사용되는 종이를 만들기 위해 많은 나무가 베어지고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  
(A4용지X1장 = 2.88g 탄소배출)
-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디지털 교과서는 보조적 도구로 쓰이고 기존 서책 교과서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데 일반 잉크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사용하여 대가오염의 원인이 된다.

#### ■ 개선방안

- 코끼리똥 소재, 갱지 등 재활용 소재 종이를 교과서를 제작한다.
- 탄소중립 시범 및 희망학교를 선정해서 도입한다.
- 친환경 잉크인 소이잉크를 사용하여 교과서를 제작한다.

#### ■ 기대효과

- 재활용 소재 종이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를 적게 베어도 된다.
- 친환경 잉크는 대두유를 넣어서 오염물질이 최소화되고, 인체에 무해하며, 폐기 시에 자연분해 되어 재활용이 쉬워진다.

# 7

## 교육부는 초등학교로 외부강사를 지원하여 연 2회 이상 기후변화로 인한 해충 예방 및 퇴치 교육을 시행해 주세요.

### ■ 현 상황과 문제점

- 지구온난화로 국내 기온이 상승하면서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종이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불개미, 흰개미, 얼룩날개모기 등 외래침입종. 즉, 해충이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
- 특히 말라리아의 매개체인 얼룩날개모기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번식하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의 67%가 아동에 해당하고 말라리아 감염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아동의 인지 및 행동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
- 예를들어 붉은 불개미의 경우 통증과 가려움, 고름, 발열, 두드러기, 드물게는 아나팔락시스(알레르기성 쇼크) 등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해충은 건강에 많은 위협을 주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해충을 주제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아동이 해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 해충을 피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야외활동이 방해를 받는다.

### ■ 개선방안

- 교육부와 지자체 주관으로 학교로 연 2회 이상 외부 강사를 지원하여 1시간씩 기후변화로 인한 해충 예방 및 퇴치 교육을 시행한다.
- 내용은 퇴치법, 보호법, 예방법, 기후변화로 유입된 해충의 종류를 교육한다.
- 캠페인, 영상활용, 채집된 해충 관찰, 퇴치제 및 기피제 사용 연습 등 아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한다.

### ■ 기대효과

- 아동이 기후변화로 인한 해충의 정보를 배우고, 스스로 예방 및 대처할 수 있다.
-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을 통해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아동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다.
- 캠페인 활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후변화로 인해 해충의 심각성과 대처법을 공유할 수 있다.

# 8

##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내구성이 높은 경사로의 전국적인 설치를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 ■ 현 상황과 문제점

- 대부분의 휠체어 경사로가 폭우나 폭설 시에 미끄럼에 강한 소재로 제작되어 있지 않다보니 휠체어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 아직까지 수도권 외곽과 비수도권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들이 많다. 이런 경우, 계단으로만 이루어진 시설에서는 장애 아동들이 이동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 ■ 개선방안

- 현재 미끄러지기 쉬운 소재로 만들어진 경사로를 내구성, 방수, 미끄럼방지에 강한 예폭시 소재로 교체한다.
- 수도권 외곽이나 비수도권과 같이 아직까지 이동시설이 계단으로만 이루어진 시설들에도 위와 같은 소재의 경사로를 설치한다.
- 지자체의 아동친화도시 평가기준, 장애친화환경 기준의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

### ■ 기대효과

- 폭우나 폭설시에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수도권 외곽이나 비수도권 외곽에 있는 장애인들이 힘들지 않게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걱정없이 보낼 수 있다.
-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한 장애인 경사로 사고 위험 확률이 낮아진다.

## 9

교육부는 교육청 단위로 수업 자료가 삽입된 지역별 온라인 수업 앱을 만들어, 재난으로 인해 등교가 어려운 상황에도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해 주세요.

### ■ 현 상황과 문제점

- 재난 발생 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생기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무리하게 등교했을 때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
- 재난 발생 여부를 알지 못해 학교에 갈 경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상황은 전국 단위 발생에 비해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각 지역별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재난 상황으로 인한 등교 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있고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할 수 있는 오프라인 수업 대체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 개선방안

- 교육청 단위의 지역별 온라인 수업 앱을 개발하여, 시 또는 군단위로 학교를 묶어 재난 상황시 신속히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COVID-19사태 때 사용했던 실시간 송출 수업(ZOOM 등) 기능을 포함하고 수업에 필요한 영상과 풀이자료를 미리 등록하여 재난 발생 시, 아동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보편적으로 학교 수업 중 사용되는 E-학습 도구와 다르게 각 지역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서 PDF 또는 수업 자료를 앱 자체에 삽입하여 차별점을 두도록 한다.
- 재난 시 '지역별 온라인 수업 앱에 실시간으로 '재난으로 인해 온라인 대체수업을 진행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알림을 보내는 기능을 넣는다.

### ■ 기대효과

- 지역에 따라 다른 온라인 수업의 여부 및 수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비교적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신속하게 지역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다.
- 재난 발생 시에도 집에서 안전하게 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아동의 교육권도 함께 보장할 수 있다.
- 재난이 발생했다는 실시간 알림을 통해 무리한 등교를 막아 아동의 생존권을, 재난으로 인한 온라인 대체수업 여부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다.

# 10

## 환경부는 아동의 의견이 환경오염 시설에 관한 지역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 현 상황과 문제점

- 환경오염 시설이 지역에 설치될 경우, 유해 물질(가스, 액체)이 발생하여 아동의 건강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하지만 아동들은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 어른들로 인하여 아동들의 건강이 고려되겠지만 직접적인 '아동의 의견'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 ■ 개선방안

- 설치 지역의 한 학교에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이 토론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방법 :
  - ① 아동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가정통신문을 돌려 적정 인원을 선발하여 진행한다.
  - ② 환경오염시설에 대해 잘 모르는 아동들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관계자분을 초대하여 토론을 함께 진행하거나 관련 내용 자료를 받아서 읽은 후 토론을 진행한다.
  - ③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릴 경우, 토론 참여자 중 3명을 뽑아 아동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 위 내용을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영향평가에 포함시키고, 지자체에서는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한다.

### ■ 기대효과

- 환경오염시설로 인한 아동의 보호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
- 활동을 통해 아동들 스스로가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다.
- 이 경험들은 아동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지속적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 의견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환경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공장을 짓기 전에 미리 환경에 해롭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공청회나 의견서 제출을 통해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 환경오염시설 : 화학 공장, 쓰레기 매립지, 폐수 처리시설 등 특징적으로 환경에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 11

## 환경부와 교육부는 매년 아동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후 위기 관련 행사를 마련해 주세요

### ■ 현 상황과 문제점

- 기후 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아동들은 기후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 관련 행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리가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 개선방안

- 아동이 직접 기후위기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한다.
- 기후 위기 관련 행사에 많은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활발히 홍보한다.
- 아동들의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
-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행사를 개최한다.

### ■ 기대효과

- 아동주도 행사를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이 창출될 수 있다.
- 어려서부터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환경을 보호하며 자랄 수 있다.

# 12

## 교육부는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지역 특색을 반영한 '환경 과목'을 만들어 주세요.

### ■ 현 상황과 문제점

- 기후오염으로 생물다양성이 저하되고 있다.
-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 지역별 생태환경이 달라서 지역개발산업(발전소 설치 또는 지역 특색 산업)으로 인한 환경파괴, 멸종위기 종 보호, 습지 등 보호해야 할 환경과 미래의 환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지역별로 생태환경이 달라서 일관적인 환경교육은 지역 학생들이 환경을 이해하는데 부적합하며 배울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 ■ 개선방안

- 학생들이 자신의 지역의 환경문제와 장단점, 개선환경, 기대효과가 들어간 특정 지역의 환경과 미래 환경에 대한 교육과정을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넣어 이수하게 한다.(학교에서 교육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다.)

### ■ 기대효과

-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지역과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어 지역환경 개선과 더불어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이 보장된다.
- 특정 지역에 더욱 잘 발생하는 기후 문제를 아동들이 인식하고 대비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자신의 지역 특색에 맞는 환경정보를 습득하면서 자신 주변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 특정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멸종 위기종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 13

## 환경부와 교육부는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기후환경 교육을 매년 실시해 주세요.

### ■ 현 상황과 문제점

- 아동들이 원하는 기후환경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이 단기적(일회성)이고 흥미가 낮다.
-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학생은 불과 42.1% 미만이며
- '현재 학교 교육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길러주고 있다.'라는 물음에 학생들은 34.44%만이 동의했다. 이는 교육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 (초, 중, 고)	학부모	교원
평소 환경(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는 편이다+매우 관심이 많다)	49.03	36.94	46.47	42.1	62.9	82.9
삶 양식 전환 의향 (에너지와 물질소비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향)	70.06	49	53.29	55.44	65.79	82.52
현재 학교교육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길러주고 있다	-	-	-	34.44	23.03	40.81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	-	-	66.32	86.57	85.82

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후위기 및 생태환경교육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외 3건(인천광역시교육청, 2021.) 보도자료를 기자가 재구성함. 단위는 %

### ■ 개선방안

- 각 학교에서 아동들이 배우거나 의논하고 싶어하는 기후위기 이슈를 선정하여 교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계절별 아동이 체감하는 기후위기 종류)
- 설문조사 결과를 지자체별 환경과에 전달한다. 전달받은 환경부는 연말에 결과를 발표한다.
- 지역별 상황, 예산, 학교 재량 등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with 교육부)
- 개선방안을 도출하면 그 다음해 기후환경 교육에 보완·수정한다.
- 위의 상단에서 하단 순서로 반복하여 꾸준히 발전시키고, 기후 이슈 트렌드를 반영한 기후환경 교육을 목표로 한다.

### ■ 기대효과

- 기후위기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들의 흥미와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다.
- 지속 가능한 기후환경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된 아동친화적 교육이다.

# 14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처한 동아시아 아동이 도움을 요청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EAS(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제안해 주세요.

## ■ 현 상황과 문제점

- 아동이 직접 실시간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아동들이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직접 목소리를 내서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아동이 직접 의견교환을 할수 있는 시간, 공간 체계적인 부분에서 현재 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포럼, 토론회 등 단기/행사적 성격의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설화된 의견수렴기구 등은 전무하여 기후대책에 있어 아동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움)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 14,17조 :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정보에 대한 접근

## ■ 개선방안

- 만 18세 미만의 국내외 아동만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신이 처한 기후 위기 상황을 공유하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 ■ 기대효과

- 기후위기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 아동의 참여 기회가 주어지며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 지속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 의식을 높을 수 있다.